

2017년 8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자 : 2017.8.25(금) 14:00~15:00

■ 주요 회의 내용

▲ 단신 보도시 심층성, 정확성 제고필요

- 폭우 폭염 양극화 보도는 최근의 이상기후에 대해 원인을 잘 분석해 주었음. 반면 관광수지 사상최대 적자 보도는 통계수치를 나열식으로 보도하였는데 단신성 기사라도 원인을 같이 설명해 주었으면 함(박동민 위원)
- 공정위에서 발표한 “점포이전 무조건 막는 가맹갑질 주의” 뉴스는 단신성 보도이지만 주어가 불분명하고 내용이 명확치 않아 이해가 어려웠음(박동민 위원)

▲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의견

- 지난 주말에 하모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제목과 같은 잔잔한 감동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문화 여성의 고향 방문 잡기에 머물러서 많이 아쉬웠음. 조금 공을 더 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김용직 위원)
- 옴부즈맨 본 방송과 재방송 모두 시청하기 아주 어려운 시간대라 형식적으로만 편성한 듯 한 느낌이 들어 많이 아쉬움(김용직 위원)
- 연합뉴스TV는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가 강점이지만 경쟁 타사의 과거 착한뉴스처럼 시각을 조금 달리한 뉴스들도 편성해보면 어떨지 고민해봤으면 함(주철환 위원)
- 해외통신원들이 뉴스를 전하곤 하는데 지역통신원이나 세대별 통신원 등을 만 들어서 기존뉴스에서 접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소식을 뉴스로 만들어보면 흥미로울 것 같음(주철환 위원)
- 공영방송 기자 피디들 투쟁을 연합뉴스TV에서 볼수 없는 점 이 안타까웠음(이재경 위원)

▲ 스크롤 자막, 표현 등 유의사항

- 속보자막에 직책 없이 이름만 있는 경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으니 직책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함(신현택 부위원장)
- 16:10 에 진행되는 뉴스 1번지 스크롤 속보에 「대법 “사법행정 남용 이규진 감봉 4개월” 징계», 「더 민주당 인재영입명단에 이유정 포함돼」라는 자막이 나옴. 일반 시청자는 이규진과 이유정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 “전고법부장 이규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으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함(신현택 부위원장)

- 속보자막에 “연합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 로 나오는데 “연합뉴스TV 실시간 주요뉴스” 로 하면 안 되는지 문제 제기(신현택 부위원장)
- 띄어쓰기 등 자막 표현방법에 일관성을 유지해주시면 좋겠음. 특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은 한자로 미, 일, 중, 북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눈에 잘 띄이고 보기에도 좋고 전달력이 뛰어난 것으로 사료됨(김상선 위원)

▲ 앵커, 기자 교육 및 출연자 관련

- 각종 현장연결시 앵커들의 진행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기를 기대. 가끔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지기도 함(주철환 위원)
- 일부 기자들의 리포트 읽기가 여전히 딱딱하거나 어눌한 느낌이 듦 통신쪽 사람들이 주로 그런 느낌인 것 같음(이재경 위원)
- 8.24일 수석보좌관회의는 살충제 계란 백서 준비 등을 지시한 회의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 방송화면에 엄중한 분위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참석자들이 웃는 모습이 자주 나와 시청자들에게 정부의 인식이 안일한게 아니냐는 오해를 줄 수 있음(박동민 위원)

▲ 긍정 의견

- 배경화면이 최근 내용으로 구성되는 등 보도내용과 배경화면 간의 연계도가 크게 향상되어 보다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음(김상선 위원)
- 전어관련 행사 등 지방의 행사들도 현장연결로 소식을 전해주어 뉴스가 풍부하게 느껴짐(주철환 위원)
-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정부 발표가 오히려 혼란과 불신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 전문가를 초대하여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 것은 적절했음. 특히 살충제 검출 농가 현황, 난각코드, 친환경 인증절차에 대해 도표 등을 통해 자료화면으로 보여주어 시청자들이 현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 앞으로도 이슈 보도시 도표 등 자료화면을 충분히 제공해주기 바람(박동민 위원)
- 가끔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이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연합뉴스TV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박동민 위원)
- . (끝)